

# **지방자치단체장 해외순방 실태분석**

**- 17개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

**2017.01**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  
**양성욱 팀장 piyrwaz@cubs.or.kr**

## 1 조사 배경

- 지방자치단체장 해외순방은 해외의 지방자치 현황을 견문하고, 선진국의 지방행정 현장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지방의정의 안목을 넓히고, 국내 지방의정활동에 접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현행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해외순방활동이 관광성 외유로 인식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자치단체장과 동행하는 배우자의 해외순방 비용을 세비로 부담하거나 태풍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해외순방을 다녀오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현재의 단체장이 들어선 시점인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17개 광역 시·도 자치단체장의 해외순방활동 현황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2 지방자치단체장 해외순방 활동 현황 (2014.7.1 - 2016.7.30)

### 1. 17개 지자체 해외순방 현황

- 17개 광역 시·도 자치단체의 해외순방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외순방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지자체는 서울시이며, 총 1,005,01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경기도로 총 918,26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세 번째로 큰 비용을 지출한 곳은 강원도이며 총 569,782,000원을 지출하였음.
- 지자체장 1인 경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이며, 총 155,43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많은 곳은 제주도이며 총 81,073,000원을 지출하였음.
- 해외순방을 가장 많이 다녀온 광역시·도 지자체장은 경기도 24회이며, 제주도 22회, 강원도 17회임. 반대로 가장 적게 다녀온 지자체장은 세종시 3회, 대전시 5회, 경상남도 6회임.
- 가장 많은 인원이 해외순방을 다녀온 지자체는 강원도 212명이며, 다음은 경상북도 160명, 경기도 159명 순서임. 반대로 가장 적은 인원이 해외순방을 다녀온 지자체는 세종시 20명, 울산시 51명, 전라북도 53명 순서임.

<표1>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장 해외순방 현황

(단위 : 천원)

| 지방자치단체 | 방문횟수 | 참가인원 | 경비총액      | 지자체장 1인경비 |
|--------|------|------|-----------|-----------|
| 서울시    | 10회  | 85명  | 1,005,019 | 63,045    |
| 부산시    | 13회  | 130명 | 544,127   | 69,511    |
| 대구시    | 10회  | 87명  | 228,956   | 52,564    |
| 인천시    | 11회  | 82명  | 259,406   | 69,068    |
| 광주시    | 14회  | 135명 | 240,654   | 30,153    |
| 대전시    | 5회   | 61명  | 216,966   | 74,482    |
| 울산시    | 7회   | 51명  | 483,692   | 63,449    |
| 세종시    | 3회   | 20명  | 33,907    | 11,549    |
| 충청남도   | 13회  | 109명 | 403,565   | 71,881    |
| 충청북도   | 7회   | 61명  | 127,579   | 13,103    |
| 전라북도   | 8회   | 53명  | 310,709   | 61,968    |
| 전라남도   | 15회  | 70명  | 238,033   | 58,630    |
| 경상북도   | 12회  | 160명 | 278,726   | 47,937    |
| 경상남도   | 6회   | 59명  | 171,057   | 30,818    |
| 경기도    | 24회  | 159명 | 918,261   | 155,438   |
| 강원도    | 17회  | 212명 | 569,782   | 56,366    |
| 제주도    | 22회  | 135명 | 224,734   | 81,073    |

\* 지자체장 1인경비는 통역비, 차량임차비, 기타행사비 등의 공통 지출내역이 미포함된 순수 항공비, 숙박비, 식비, 일비만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14.7부터 2016.7까지 2년 여의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장 동행 해외순방의 총비용이 65억 원에 달해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해외순방 비용까지 합산하면 연간 수십억 이상의 세금이 지자체, 지방의회 해외순방 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2. 해외순방 상세내역 현황

### (1) 기타행사비 지출 현황

- 해외순방 당시 공연 및 기타행사비를 지출한 지자체는 총 7곳이며, 그 중 1억원 이상을 행사비용으로 지출한 지자체는 서울시, 강원도, 울산시, 부산시 4곳임. 서울시의 경우 2016년 7월 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공연의 1회 행사비용으로 5억 3천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 절반 가량의 비용이 연예인 출연료와 대관료로 지출되었음.

- 다음으로 기타 행사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강원도의 경우 총 8회에 걸쳐 행사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울산시의 경우 1회 행사비용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음.

<표2> 광역시·도 해외순방 당시 공연/행사비 지출 내역

| 지방자치단체 | 공연/행사비 총 지출금액 |
|--------|---------------|
| 서울시    | 530,600       |
| 강원도    | 338,735       |
| 울산시    | 237,622       |
| 부산시    | 107,486       |
| 대전시    | 5,063         |
| 인천시    | 1,680         |
| 경상남도   | 1,454         |

## (2) 동일지역 해외순방 분석 현황

- 비슷한 인원이 같은 기간, 같은 지역을 해외순방 다녀오더라도 지자체마다 비용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아래 표에서 대표적으로 미국을 다녀온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장의 해외순방 비용을 비교했음.

<표3> 지자체별 미국 해외순방 비용 분석

| 지방자치단체 | 방문기간                   | 방문일수   | 참가인원 | 경비총액    | 지자체장 1인경비 |
|--------|------------------------|--------|------|---------|-----------|
| 경상남도   | 2014.09.18~2014.09.27  | 10박11일 | 16   | 64,433  | 8,362     |
| 경기도    | 2014.07.25~2014.08.03  | 9박10일  | 15   | 155,371 | 14,997    |
| 인천광역시  | 2016.3.14~2016.3.20.   | 6박7일   | 11   | 53,395  | 13,335    |
| 충청남도   | 2016.01.04.~2016.01.12 | 9박10일  | 10   | 73,105  | 4,120     |
| 대구시    | 2015.09.27.~2015.10.04 | 8박9일   | 10   | 49,781  | 15,071    |
| 충청남도   | 2014.11.15.~2014.11.21 | 8박9일   | 8    | 55,907  | 4,487     |
| 서울시    | 2014.9.21.~2014.9.30   | 10박11일 | 8    | 141,557 | 15,517    |
| 전라남도   | 2016.9.20.~2016.9.24   | 5박6일   | 7    | 34,772  | 9,634     |
| 전라북도   | 2016.5.23.~2016.5.28.  | 5박6일   | 6    | 34,211  | 9,022     |
| 인천광역시  | 2015.6.4~2015.6.11.    | 7박8일   | 6    | 30,088  | 13,244    |
| 전라남도   | 2016.2.22.~2016.2.27   | 6박7일   | 6    | 38,733  | 12,333    |
| 대구광역시  | 2016.01.07.~2016.01.11 | 5박6일   | 6    | 19,598  | 9,045     |
| 광주광역시  | 2015.04.22.~2015.04.26 | 5박6일   | 3    | 16,779  | 8,990     |

- 동일하게 10박 11일 동안 미국을 방문한 경상남도과 서울시를 비교해보면 8명 인원이 다녀온 서울시의 경우 1억 4천 만원 가량을 지출한 반면, 경상남도는 2배의 인원인 16명이 다녀오고도 절반도 안되는 6천 4백만원만을 지출하였음.
- 지자체장 1인이 미국 해외순방에서 지출한 비용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를 보임. 9박 10일을 다녀온 충청남도지사의 1인 지출비용이 4천만원 가량으로 최소 경비를 지출한 반면, 경기도, 인천, 서울, 전남은 비슷하거나 짧은 기간을 방문하면서도 지자체장 1인이 1억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3) 기념품비 지출 현황

- 대구시와 세종시의 경우 기념품 구매비용이 해외순방 지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이사항임. 금액은 대구시 6,721,000원, 세종시 7,191,000원으로 대략 7백만원 정도의 비용을 기념품 구매비용에 지출하였음.

## 3 시사점

-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해외순방 활동이 관광성 외유로 인식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 심사기준이 부재하거나 유명무실하고, 순방 이후 평가나 감사체계가 없어 외유성 활동으로 남용되거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음. 국민과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행해지는 해외순방활동이 사실상 단순 비교시찰 및 교류의 명목으로 지자체장 및 공무원들의 외유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임.
- 17개 광역시·도의 2년 여간 해외순방활동에 총 지출된 비용이 65억 이상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 지자체, 지방의회의 해외순방활동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최소 100억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수 십억원의 해외순방 비용을 지출하고도 달랑 순방지의 단순 분석에 불과한 보고서 몇 장으로 때우거나 그나마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심지어 서울시의 경우 5억원의 비용을 해외에서 일회성 콘서트를 개최하는 데 지출하였음.
- 지자체장의 해외순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관 및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지자체장의 해외순방 사전심사와 사후평가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